



로버트 안 후보를 위한 기도회가 최근 열렸다.

로버트 안 연방하원의원 후보 위한 기도회

6월 3일, 4일, 6일 투표에 한인 참여 독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등을 포괄하는 연방 34지구 하원의원에 출마한 로버트 리 안 후보를 위한 기도모임이 5월 24일 열렸다. 이 기도모임은 '로버트 리 안 연방하원후보를 후원하는 34지구 선거구 내 한인교회 일동'이라는 단체가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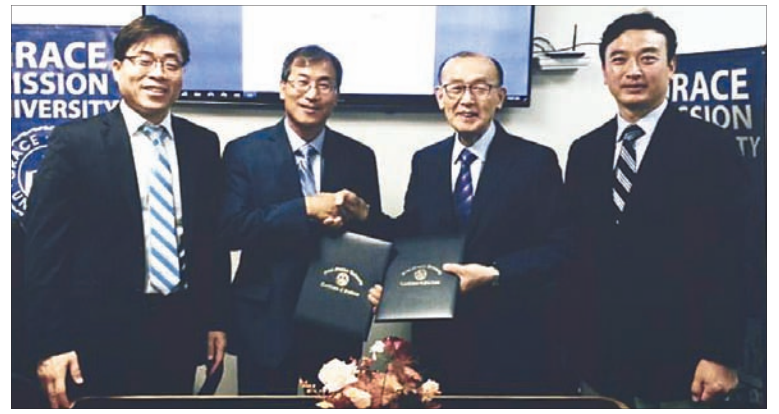
김재욱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행사가 시작돼 오진형 목사(남가주황해도민회 회장)가 환영사를 전하고 박성근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가 대표기도했다. 조병국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성경을 봉독한 후, 박

현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 오상철 목사(부흥평신도대학원장), 백지영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김명균 장로(전 LA한인회장)가 후원선언문을 낭독하고 정시우 목사(남가주교협 명예회장)가 격려사를 전한 후, 홍성관 목사(아메리카선주립대학교 총장)가 광고, 지용덕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가 축도했다. 모든 모임 후 식사를 위한 기도는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가 했다.

이들은 안 후보가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될 경우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월 3일, 4일 조기투표와 6월 결선투표에 한인 교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달라 부탁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3일과 4일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유권자 등록과 조기투표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는 323-285-1246.

권 쉐비 기자



바울선교회와 GMU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GMU 사진 제공

바울선교회-GMU 세계 선교 협력 약속

바울선교회와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선교사 재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MOU는 세계 선교에 관한 현장 전문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연합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바울선교회는 강통교회로 유명한 전주안디옥교회를 개척한 이동휘 목사가 세계 선교를 위해 설립한 초교파 단체로 현재까지 92개국에 450여 선교사를 파송했다. GMU는 ATS를 비롯해 TRACS와 ABHE의 인가까지 보유한 복음주의 한인신학교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선교를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졸업생의 40%가 선교사로 파송됐다. 또 ATS의 인가를 받은 선교학 박사(D.Miss.)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5월 19일 GMU에서 이뤄진 협약 체결식에서 두 단체는 "선교학 개발

및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학적 업그레이드를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호 선교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각 기관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개발, 돌보는 과정을 통해 상호 집단지성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서에 바울선교회 측에서는 대표인 이동휘 목사와 국제본부장 김태현 목사가 서명했으며 GMU 측에서는 총장 최규남 박사와 교무처장 김현환 박사가 서명했다. 또 MOU의 증인 자격으로 바울선교회 해외훈련원장 이승일 박사와 GMU 국제입학 코디네이터 이병구 박사가 참여했다.

이병구 박사는 "이번 협약은 산학협동이 이루어진 경우로 선교신학과 선교현장을 함께 공유하며 학문과 실재를 균형있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김준형 기자

베델한인교회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음악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연주회를 연다. 6월 3일(토) 오후 7시 채프만대학교(1 University Dr. Orange, CA 92866) 내 뮤스코 센터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는 베델한인교회 청소년들로 구성된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교회 성가대, 케노시스 챔버 중창단, 앙상블 크리스토퍼, 칸투스 남성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유명 음악인 소프라노 김수연, 젠리, 메조 소프라노 제인 심, 테너 제이 문, 바리톤 리처드 젤러도 출연할 예정이다. 지휘는 박정영, 장상근이 맡는다. 이들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 바흐의 칸타타 80번 "개혁의 잔치-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성가곡을 연주

하며 베도벤 교향곡 9번 4악장 "합창 등도 연주한다.

티켓은 성인 15달러, 학생 10달러로 웹사이트 www.muscocenter.org/event/500anniversary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번 음악회의 모든 수익금은 유스 오케스트라의 캄보디아 선교 공연 기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213-700-7813



베델한인교회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습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전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7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제2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DISCOVER IN CHRIST



코헨대학교 본교에서 제29회 졸업식이 거행됐다.

코헨대 제29회 졸업식 거행

27개국 229명 학생 학위 받아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설립자 강신권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제29회 졸업식이 5월 26일(금) 오후 토론토의 본교 채플룸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브라질,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7개국 코헨대 본교에서 학사 125명, 석사 55명, 박사 39명, 명예박사 10명 등 총 229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총감독과 앙골라 복음주의 교단 총연합회 회장, 비즈포스트그룹의 존 김 회장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은 로날드 밴더메이

코헨대 총장이 개회기도 후 개회찬송 '그린란드의 얼음산(Greenland's Icy Mountain)'을 다함께 합창하고 게리 코헨 박사가 막10:35-37을 본문으로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이한우 총장(브라질 코헨대 본교)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는 코헨 박사와 함께 피드몬트대의 윌리엄 스티드 총장, 코헨대의 로날드 밴더메이 총장, 코헨대의 이사장 미셸 강 박사, APU(American Premier University)의 알렉스 파시니아 총장 등이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제이미 김의 'You raise me up' 특별찬양 후 윤 사무엘 박사와 윌리엄 스티드 박사가 축사를 전한 후 카주야 하야시 목사가 특별 메시

지를 전했다. 이어 러시아 찬양단의 특별공연 후에 코헨대 아시아 총장 임만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코헨대학교는 유대계 미국인이며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 게리 코헨(Gary G. Cohen) 박사가 역사 신학자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실천 신학자 윌리엄 케인 박사, 조직신학자 강신권 박사와 함께 198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설립한 '정통보수신학과 세계선교신학'을 지향하는 신학교로 세계 153개 국가에 신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우는 '비전153 월드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123개국에 신학교 분교가 세워졌다. 이인규 기자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전경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선교목회학 및 설교목회학 박사 과정 신설

미남침례회에서 설립한 6개의 신학대학원 중 하나이며, 규모로는 북미 6번째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내에 선교목회학(D.Min. in Missions)과 설교목회학(D.Min. in Expository Preaching)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하고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신학대학원 가운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2년 전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Ministries) 과정을 개설했고, 지난 해에는 한국부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부를 새롭게 열었다. 그리고 2017년 가을학기부터는 선교목회학과 설교목회학 박사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For the Church"라는 학교의 기치를 따라, 다변화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 현상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에 한국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세계 각지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 목회자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선교목회학과 설교목회학 박사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과정은 그동안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쌓아올린 북미 최고의 전문적이고도 실제적인 강의와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미드웨스턴의 한국부 재학생이 5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한 해 졸업생도 박사 과정 17명과 석사 과정 6명을 포함, 총 23명에 이른다. 박사 논문 평균 분량이 300쪽을 넘고 논문 과정의 학생이 78명인 것에 비하면, 박사 논문의 질이 높으면서도 졸업율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학사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교목회학, 설교목회학 과정의 신설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들이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신학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미드웨스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mbts.edu, 이메일 lchoi@mbts.edu(최세롬 사무), 전화 816-414-37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영성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세미나 개최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1박2일간 필렌의 나눔동산수양관에서 5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1박2일의 시간을 갖고 영성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희욱 목사와 장규대 목사의 전인 치유 영성 세미나, 신인환 선교사의 아프리카 브룬디 나병환자의

료 선교보고, 김용훈 박사의 중풍 및 50년 임상 학술 세미나, 장재수 박사의 체형 교정치료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소망장로교회(담임 성요셉 목사)에서 정기예배 및 한의사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6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예안선교교회(담임 김영호 목사, 255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에서 '무료 한방 진료 및 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장재수, 김용훈, 정종오, 백광덕, 이혜원, 김사론 등 미주기독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강의하고 진료하며 질병 예방 및 건강 상담도 진행한다. 문의) 김사론 원장(213-703-8541)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 위 과 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 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학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2017년 졸업식 및 학위 수여 예배	일시: 2017년 6월 5일(월) 오후7:0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의 일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D.Miss	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
여름특강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세계선교동향) 헬라이어
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7월19,26일)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

2017년도 가을학기 등록 시작: 2017년 7월 1일
가을학기 수업시작: 2017년 8월 28일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선교 현장 활성화하고 선교사 복지에 역점 둘 것”

[인터뷰] 예상합동 GMS 제10대 이사장 김찬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계계선교회(GMS) 제10대 이사장인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가 최근 미주를 방문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주요 선교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GMS(Global Mission Society)는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설립했으며 현재 98개국에 2천5백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김찬곤 목사는 세계 선교에 남다른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GMS에서 지난 10여 년간 섬겨 왔으며, 그 같은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GMS의 신선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LA 지역을 방문한 김 목사를 만나 GMS와 세계 선교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9월 GMS 이사장에 선출되셨는데 지금까지의 활동과 그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다.

약 9개월 동안 한 달에 2~3회씩, 총 20개국을 순회하며 선교 현장을 격려하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교회의 상황도, 선교의 결과도 좋지 않다. 특히 새로운 선교 전략과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현장 선교사들이 하는 질문이 10여 년 전과 다를 바 없더라. 좀더 새로운 출구 전략과 선교사 재배치, 1.5세대 및 2세대 선교가 필요하고, 현지인들을 세워 팀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미주선교센터 매각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가 매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제가 GMS 이사장이 되던 날 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매각했다. 약 30억 원 정도의 선교사 퇴직 기금으로 미주선교센터를 매입했었는데, 이로 인해 선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주선교센터를 50억 원에 매각해 15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고, 덕분에 871 선교사 가정에 퇴직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GMS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현재 GMS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은 무엇인가.

MK(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사관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MK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머물 곳이 없어 찌질방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GMS가 그동안 선릉힐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오다가 재정 및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최근 매각했는데, 매입자가 계약금액 52억원보다 많은 53억원을 지급해 줬다. 이를 시드머니로 활용해 학사관을 마련하려 한다. 감사하게도, 서울 총현교회도 GMS의 이 같은 비전을 듣고 자체 MK 학사관을 추진하고 있다.

주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역할도 하려 한다. 그 수가 전체 선교사의 무려 20%나 된다. 16개 지역 선교부와 그 산하 지부들을 강화시켜서 재정을 마련하고 선교사들이 선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교전략연구소(위원장 김재호, 소장 심장섭)를 활성화시켜 선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프로젝트보다는 전략 및 매뉴얼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동안 본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각론이 전혀 없었다. 이제 교회 개혁, 미전도종족 개척 등 큰 틀 속에서, 현장에서 각론 및 전략전술을 만들면 본부는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지역에서 훌륭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평신도 선교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교단 중심, 목회자 중심의 선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전문인 선교 시대이며,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문인 디아스포라 MK들과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MK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들의 문화, 언어, 사고방식 등

은 현지화되어 그 나라를 품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 밖에 선교사 재배치, 은퇴 선교사 돌봄 등이 주요 과제이며, 이 같은 사안들을 위해 111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GMS가 2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6월경, 2011년 이후 7년 만에 GMS 선교대회를 개최하려고 구상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 선교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대한 선교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곳에서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하며, 선교지로서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간 미주 서부에 GMS 산하 해외 선교사 훈련원(OMTC)이 전문인 선교사 양성과 선교사 재훈련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왔다. OMTC가 제 역할을 다해 선교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화권 선교가 큰 화두다. 중국의 교회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현지인 지도자들이 선교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다. 이들을 잘 교육해 세계 선교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선교 전략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태국에도 아시아권을 위한 선교훈련원을 만들려고 한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각국의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이 연합해 사역과 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GMS가 가진 역사와 역량을 심분 활용할 것이다. 각 교단 선교부 대표와 만나 네트워크를 짜서 이중투



김찬곤 목사

자 문제를 해결하고 노하우를 나누며 서로 돕는 선교를 해 나가려 한다. 당대에 끝나는 선교가 아닌, 그 나라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슬람권 선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는 극단적인 면이 있다. 공격적인 선교는 답이 아니다. 이슬람이 음식과 문화 등을 통해 몰려온다 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선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면 많은 연결점을 만들 수 있다. 답은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된다.

-현장 선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선교사가 교회를 도와야 한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한국교회에 와서 터트려라. 여러분이 와서 은혜로운 보고를 해 줘야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 다른 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 하거나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죽을 각오로 선교해 달라. 그러면 교회가 산다.

-김찬곤 목사는?

고신대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안양석수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으며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 이사 및 공동대표, 교갱뉴스 편집인 등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인규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하게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의 드리겠습니다.
·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Back to the Bible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강좌 “Back To The Bible”
남가주목회자를 위한 신명기 원전강해

통전 Wholeness
키아즘 구조 Chiasm
통합 Harmony
통섭 Consilience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토브성경원전연구소에서 남가주목회자들을 위한 **“신 구약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구약(TORAH: 창, 출, 레, 민, 신)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히브리식 사고에 입각해 통전(Wholeness), 통합(Harmony), 통섭(Consilience)의 히브리식 사고(Hebrew Thinking)로 형성된 키아즘 구조(Chiasm)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네번째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명기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 강사 : 강신권 목사 (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6월 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20
- 인원 : 20명

강사: 강신권 목사

▪ 주최: 토브성경원전 연구소 ▪ 주관: 기독교일보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0>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다녀와서(2)

3박4일 간의 글로벌 얼라이언스 집회 중에 총 30여 명의 각국 현지인 지도자들이 선교보고를 했다. 2년 전 제3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때의 보고와 비교해서도 각국의 선교 부흥은 실로 엄청났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국민 전도에 힘쓰면서도 더 힘을 모아 타국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단기선교로, 혹은 학생선교로 나가는 각국의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들으며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아멘'하며 감격했고 감사드렸고 박수를 보냈다.

특히 몇 나라들의 보고 중에 파키스탄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 보고는 승리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고 팔레스타인 교회의 보고는 일사각오를, 키르기스스탄 교회 부흥 보고는 '하면 된다'는 소망을, 요르단 교회 부흥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터키 교회의 부흥 보고는 세계선교연합의 가능성을, 독일 교회의 난민사역 보고를 들을 때 독일 교회의 난민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러시아 교회의 부흥 소식은 교회 회복의 꿈을, 베트남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 나라의 기상을, 인도네시아의 선교 부흥 보고를 들으며 사막의 선인장 같은 영적 생명력을 느꼈다. 조지아 교회의 선교 부흥 소식에 그들의 기독교 역사의 저력을 느꼈고 필리핀 교회의 선교 부흥 보고 때 그들의 창의적·순교적 선교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엔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이 50여 명 참석했다.

인도 교회의 부흥 소식엔 성령의 역동성을 느꼈고, 중국 교회의 선교 부흥 소식엔 4천 5백명 장내가 일제히 기립할 정도였다. 중국의 영적 성장은 현재 세계 최강이라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세계교회의 기대는 엄청났다. 2030년까지 1백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꿈이 중국 교회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 교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회 목사님이 보고 때 자기 소개를 먼저 하면서 영정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비추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 분은 오래 전 몽골로 파송됐다가 순교했던 필자의 신학교 선배인 최순기 선교사님이었다. 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처음 전도하여 양육했던 제자가 몽골 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한 분이 되어 이번 몽골 대표단을 인솔하고 오신 것이다. 너무도 반가워서 눈물이 왈칵 솟았던 시간이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보고를 들으며 수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를 낸 역사적 교회임을 보았고, 일본 교회는 지금 한창 재부흥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교회는 한인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 후예들이 기독교 지도자로 많이 배출되어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감격했다. 아제르바이잔 교회의 잔잔한 부흥 소식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이집트 교회의 성장 보고를 들을 때엔 이집트가 아랍의 심장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근에 귀한 순교자들이 생긴이란 교회의 선교 보고 때엔 순교자들의 영상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 빠졌다.

오전과 오후에 시간들을 쪼개어 각국 지도자들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모인 대중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각국을 축복하며 각 나라의 선교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과 함성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능력은 각 나라를 물론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10)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병신'이라며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천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설비가 전혀 없던 때, 평양에서 이 일은 시작됐다. 일찍이 이곳에서 선교하던 감리교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W. J. Hall, M.D.)이 의료 활동을 하다 전염병에 걸려 운명하자, 그의 부인 로제타 홀(Rosetta S. Hall, M.D.)이 남편의 일을 이어 받아 계속 선교활동을 했다. 그녀는 1894년 앞 못 보는 소녀 하나를 데려다 가르쳤는데 이것이 한국 맹학교 효시다.

1906년 시각장애 동생들 둔 뉴욕의 클락(Mrs. Clocke) 여사가 한국 시각장애 소녀들을 위한 교실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 주었다. 로제타는 이 돈으로 이들을 위한 교실을 하나 마련했다. 1907년에 7명 학생이 있었고, 1909년에 소년맹학교에 12명이, 1915년에는 40명 학생이 공부했다.

로제타는 뉴욕 점자를 조선말에 맞게 고쳐 뺀뺀한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찍어 점자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점자를 배워 점자로 읽고, 쓸 수(찍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술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쳤다. 특히 소녀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조끼, 장갑, 슬리퍼 등을 뜨게 했다. 1914년 11월 '시카고 헤럴드' (The Chicago Herald)지는 평양의 맹학교 소녀들이 만들어 팔기에 여왕에게 보낸 선물들 중 예기 옷, 양말, 장갑 등의 모습들이 유리 창 안에 진열된 것을 보도한 일이 있었다. 홀 부인은 1909년에는 이 맹학교에다 이농학교(耳農學校)를 개설하여 귀머거리 말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로제타 여사가 한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생각하면 그녀를 '한국 시각장애인의 천사'라 불러 마땅하다.

한편 서울에서는 감리교 본부가 있던 정동에 훈맹학당(訓盲學堂)이란 맹아학교를 설립했다. 평양에서 활동하던 장로교회 마택 목사 부인

은 변국(變局)에 대한 기대의 풍설(風說)은 정부 내외 시골 벽촌에까지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론은 일반의 반대보다 찬성을 더 얻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변천을 가져온 새 시대는 정부 측의 기독교도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신각료들과 그들의 측근자들 중에 몇 사람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기독교를 신봉하고 교회의 교인도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종교 자유의 혜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군주와 왕비께서는 지난 겨울동안 시외로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구원의 진리의 개락을 성의 있게 들으셨다. 고위층 중에는 성경과 기타 종교서적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읽고 토론하기도 하여 상류층에 반영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다. 금년 봄에 일반 민중이 설교를 들으러 많이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 일찍이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예배 초소는 가득차고 문밖에 전도인의 말소리가 들리는 뜰 안에는 사람으로 들어찼다. 노방 전도에도 사람이 이전보다 많이 모이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전도에도 명심하여 듣는 이들이 전보다 많아졌다. 지방에는 전도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상류층도 접촉하고 있다. 과거에 선교사들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접근하려 하는데 그런 시례는 한 둘이 아니요, 도처에 많이 있다."

이 글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가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 선포다. 그러나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에 그치지 않고 육신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까지 파고들었다. 의료, 교육 등 기본에서부터 고래의 악습 타파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 결과 4천년 동안 쌓여 있던 적폐가 혁파돼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간상이 배태됐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선교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정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의 공헌에 머리 숙여 사은해야 한다. (계속)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LEE'S MORTUARY

당신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미전국 지사망

- 앨레이, 오펜카운티, 시카고, 아틀랜타 지역 지사망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경험의 등적함

- 1966년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완벽한 장례식을 도와드립니다

LEE'S MORTUARY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 의사 회장 이시용 장로

직원 및 협력업체 모집

직원모집 장례지도사, 장례보험설계사, 장례영업사원
 협력업체모집 비석, 관, 묘지, 꽃, 사진, 주얼리, 각종인쇄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기념촬영

프로그램 대신 전도 패러다임 변해야

김남식 박사,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서 발표

한국실천신학회(회장 조재국 교수) 제 64회 정기학술대회가 27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종교개혁 정신과 실천신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남식 박사(서울신대)가 '종교개혁적 전도 패러다임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서적·역사적·실천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1세기 한국교회의 최대 이슈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있고, 이를 위해 각양의 전도 전략을 연구·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회 신도는 줄고 교회 갯수만 증가하는 상황으로, 그 가시적 원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증가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는 하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며,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는 추락하는 중"이라며 "즉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전도 패러다임'에 대해 성서적·역사적·실천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성서적 전도 패러다임에 대해 김남식 박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전도의 의무를 지니고,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대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전도를 실천해 왔다"며 "하지만 문제는 전도의 정의가 시대마다 교회마다 다르게 이해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했는지 의문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한 가지 예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십자군 전도운동'을 들었다.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펼쳐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믿는 신자들이 행사에 동원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그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이미 복음을 들어보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전도 행사라는 차원에서 '명목상의 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C. H. 다드(Dodd)의 견해를 토대로 예수님의 전도를 '케리그마적'과 '디다케적'으로 구분했다. 케리그마적 전도는 대중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막 1:15)이고, 디다케적 전도는 교육을 통해 열두 제자들을 종중적으로 양육하신 것이다. 그는 "물론 예수님의 전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회의적"이라며 "예수님은 케리그마적 복음 메시지와 더불어 제자를 만들기 위해 디다케적 전도를 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유독 '일단 교회에 데려오게 하면 된다'는 식의 케리그마적 전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로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 드물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은 좀 더 나은 말씀을 찾아 수평이동을 하게 됐으며, 교회는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과 부대시설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만일 교회가 전도를 '제자 양육'이라고 선언한다면, 인내와 기도로 한 영혼을 가꾸는 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이고, 전도 소그룹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을 위해 오셨다면, 단 한 번의 설교로 12명을 제자로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역사적 전도 패러다임에 대해선 "흥미롭게도 교회사에서 부흥을 경험한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 '소그룹 활성화'를 목격할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소그룹이 아닌 '전도 소그룹의 활성화'라며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각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

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영적 성장을 추구했을 때 기독교는 10년 동안 40%씩 증가해 350년 전체 인구의 56.5%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로마제국의 기독교 국교 승인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게 됐다"며 "결국 종교개혁 후 18세기 웨슬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서적 전도의 본질 회복'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출됐다"고 했다.

그는 "19세기 부흥주의와 20세기 교회 성장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전도는 여전히 성직주의와 교회성장주의의 시녀로 끌려왔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전도 패러다임을 가졌는가에 따라 전도의 실천은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광신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실천적 전도 패러다임과 관련해선 "실천적 측면에서 전도에는 각성과 회심, 성화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볼 때, 교회는 즉각 사역의 초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소그룹이 구도자와 회심자와의 대화의 장이 되며, 불신자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는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식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initiation)이 때로는 새신자 교육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삭제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할 자기부인과 희생의 조건(마 16:24)을 갖추게 하기보다는 번영과 이데올로기라는 그릇에 선택적 성경구절로 이뤄진 혼합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성과 회심, 성화를 실천적 렌즈로 분석하면, 교회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며 "리처드 플래처(Richard Fletcher)가 말했다 초대교회는 '서서히, 고통스러운 정도로 서서히' 성장했는데,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건강한 성장을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가 추구하겠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1세기 교회들은 전도의 다면적 측면으로 전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도의 정의와 범위의 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전도 행사나 건조한 반복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할 수 없다. 500년 후 종교개혁을 다시 기념할 때, 지난 5세기의 전도 패러다임이 분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회장 조재국 교수가 설교한 개회예배 후 배지연 박사(전주대)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소명', 순한나 박사(장신대)가 '칼빈의 Theologia와 페리코레시적 예배신학', 김기용 박사(한일장신대)가 '실증적 디아코니아 연구 스케치', 김상백 박사(순신대)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병든 신앙에 대한 영성적 치유', 천병석 박사(부산장신대)가 '루터의 비텐베르크 설교 8편의 분석적 고찰', 고원석 박사(장신대)가 '종교개혁에 비추어 본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오전 시간 발표했다.

오후에는 여한구 박사(국제신대)가 '아니마 개념을 통해 본 심 봉사의 개성화', 김경은 박사(장신대)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 양승아 박사(서울장신대)가 '상징행명과 고린도교회주의 만찬과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계재광 박사(한남대)가 '종교개혁 정신과 한국의 선교적 교회론의 재정립'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신의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사역: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를 배워지며, 이만기증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10:00-오후 1:0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양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009 C. (213) 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말씀, 기쁨, 믿음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몰스. 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의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사탄의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영양회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 저녁 8:00

강장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 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민들레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함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께 갈라리라 (골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렌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츄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참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뉴욕 나눔의집이 새 노숙인 쉼터를 마련했다. 나눔의집은 22일 새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뉴욕 나눔의집 단독주택으로 쉼터 이전

한인 노숙인 쉼터인 뉴욕 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개원 6년을 맞아 단독주택으로 이전, 더욱 활발한 노숙인 돌봄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나눔의집은 5월 22일 플라싱의 한 가정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노숙인 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새로 문을 연 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 방 4개와 주방, 화장실 2개, 다락방 등의 구조로, 한인 노숙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나눔의집은 설립 후 1년 동안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나눔장로교회 서비스로 주중 낮 시간에만 사용해 왔다. 침실을 한인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다가 상가 지역으로 이동을 위한 임시 무료쉼터로 활용하면서 15명의 노숙인들의 자립과 재활의 터전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최근 한인외사협회에서 \$10,000을 후원 받아 그 중 \$5000로 단독주택을 물색하던 중 절반은 밀린 렌트비로 사용했으며 잔액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게 됐다. 렌트 재정은 나눔의집 이사장 문석호 목사(\$5000), 부이사장 양민석 목사(\$5000)가 후원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5명이 거주 중이며, 새 쉼터에는 1층에 4명, 2층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당분간 매달 렌트비 마련을 위해 2층의 방 2개는 일반인에게 렌트를 주고 1,100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월 렌트가 4,20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매달 3,000달러의 재정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뉴욕 나눔의집은 미국에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2011년부터 뉴욕 일원 한인 노숙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임시거처로서의 쉼터를 제공해오고 있다. 후원 문의) 718-683-8884



현당 감사예배 후 참석자들이 친교를 나누고 있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 현당 감사예배 목회자와 사모들의 영적 회복 힘써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쉼터를 제공하고 신앙적 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창길 목사)가 개원 6년 만만이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자체건물을 매입,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돌봄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자체 건물 마련을 고심하던 중 2015년 말 잉글우드 지역에 위치한 0.65에이커 부지의 106년 된 건물을 극적으로 찾았고, 구입 절차와 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많은 간증들을 남기며 지난해 입주했으며 올해 모든 은행 용자를 상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체 건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잉글우드 개신교수도원 에덴가든에서 현당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자리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과 평소 개신교수도원을 이용해 온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개신교수도원수도회의 자체 건물 마련을 축하하면서 사역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현당예배에서 원장 김창길 목사는

그간의 과정과 관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현당 감사예배는 김창길 원장의 집례로 박범식 장로(부이사장) 기도, 이우석 집사(이사/부회계) 성경봉독, 황진호 집사 특송, 이광순 목사(전 장로회신학대학 원장) 설교, 김에스터 목사(부원장) 성찬식 집례, 김경국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 축사, 잭 로르(포레스트힐제일장로교회 담임) 축사, 대니얼 목사 축사, 개신교수도원 임원들 축복송, 2017 수도원상 증정, 임종화 목사(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28대 노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김창길 목사가 30년 10개월을 담임한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은퇴한 후 사모인 김에스터 목사(부원장)와 함께 계간지 '수도원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준비해 왔다. 현재 사모세미나와 정신건강세미나, 화요일성경공부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3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사모, 평신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 기도하고 영적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 때 로마가톨릭교회의 성당으로 사용됐던 건물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교회로 회복

미국 개신교회가 80만 달러에 구매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던 교회 건물이 다시 예배당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2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 웨스트포드에 소재한 오차드힐 교회는 최근, 한때 성당이었던 '알타 바'(Altar Bar)라는 이름의 나이트클럽을 80만 달러에 구매했다. 오차드힐 교회는 매주 예배 참석자 수가 2,500~3,000명에 이른다.

오차드힐 교회 담임 목회자인 커트 비요클룬드(Kurt Bjorklund)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이 피츠버그 지역 주민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이 시설을 구매했다"면서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매우 적당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예배당으로 다시 활용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요클룬드 목사는 "이 공간에서 음악 행사도 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배와 주중 성경공부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옛 교회 건물을 다시 예배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필요에 맞게 공간을 개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역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바가 있었던 공간을 커피숍으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강단은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90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로마 가톨릭에서 슬로바키아 이민자들을 위해 세운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스'(St. Elizabeth of Hungary) 교구의 교회였다. 지난 1993년 가톨릭교회가 교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인들은 인근의 3개 교구로 이동했다. 2001년 교구는 건물을 팔았고 이는 '알타 바'(Altar Bar)라는 이름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

피츠버그 교구의 앤 로저스 대변인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교구의 처음 전도 방식은 탄광과 제철소 근처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노동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온 이민 노동자들이 많았고 이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피츠버그 지역의 철강 산업은 모두 사라지고, 교구를 설립했던 이들의 손자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많은 교구들이 외곽지역의 선벨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본래의 선교적 목적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차드힐 교회와 인근 지역 전도를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 틸러슨 국무장관, 라마단 행사 거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국무부 종교·국제담당국의 라마단 축제 개최 요청을 거절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9일(현지시간)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마단 행사에 대한 가능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 미국 대사관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라마단을 기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관 출신으로 백악관과 미 국무부의 라마단 행사를 도왔던 파라 팬디스는 "만약 틸러슨이 올해의 라마단 축제 개최를 거부한다면, 이는 '우리 행정부는 무슬림과의 관계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18

년 전인 지난 1999년 라마단을 백악관의 외교적 행사로 치르는 전통을 세웠고, 이후 장관들은 출신 정당과 상관없이 라마단 첫날 단식을 끝낸 후 이프타르(iftar)라고 불리는 저녁을 먹거나 라마단이 끝나는 날 열리는 축제인 이드 알피트르를 열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슬람과는 어떤 분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중동 지역 출신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책을 펼쳐 이슬람권의 반발을 샀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50여 명의 무슬림 정상들 앞에서 "미국은 테러리즘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이념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혜진 기자

필리핀, IS 추종 반군 본거지에 계엄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시간 25일 IS를 추종하는 무장 세력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의 주요 시설물을 점거한 후 성당과 학교 등을 불태우자 민다나오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다나오는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으로 필리핀 제도 남쪽에 위치했다.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 2,000만 명이 거주 중인 이 섬은 본래 무슬림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가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오지로 밀려나며 종교 갈등이 발생했다.

필리핀에서는 1970년 경부터 모로민족 해방전선, 모로이슬람해방전선 등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무슬림의 독립을 요구하며 40년 넘게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약 4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민

다나오는 IS를 추종하는 반군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IS 연계 조직인 아부 사야프는 민다나오 섬에 폭탄 테러와 외국인 납치 및 살해를 자행해 왔다. 또 최근 정부군과 반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산발적인 국지전도 이어져 왔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강경 진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 오델수르주 마라위시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IS 추종 세력인 마우테 그룹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의 군경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전역에 계엄 지역이 확산됨에 한국 외교부는 24일 60일간 한시적으로 민다나오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를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LA채플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 (818) 363-5887 Tel. (213) 232-3183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전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장동석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 오전 11:00 **민경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져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규남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6: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알찬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대 주일학교 5: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일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한글학교, 예프터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글예) 장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리스펙티브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풀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최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www.sellacare.com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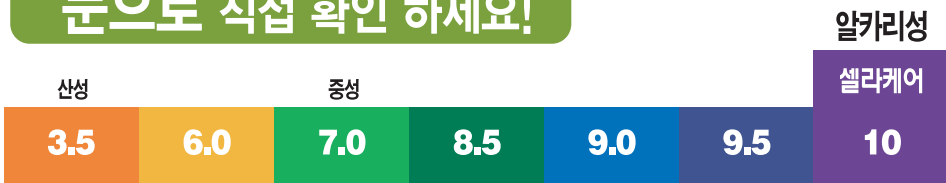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엠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이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영	714,333,7866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해동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Asian American pastors from Southern California, Atlanta, and Texas gathered at Oceanside, CA for the annual 'Synergy Retreat' from May 22 to 24. (Photo courtesy of Steve Choi)

Asian American Pastors Share Stories and Encouragement at 'Synergy Retreat'

Pastors from 17 churches gather and share in fellowship

BY RACHAEL LEE

Twenty-seven Asian American pastors gathered for a time of sharing and encouragement at what is known as the 'Synergy Retreat,' which took place from May 22 to 24 in Oceanside, CA.

The annual retreat was launched in 2007 by Pastor Steve Choi,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and today is organized by a team of pastors from six local churches, including Good News Chapel,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4 Pointes Church (Atlanta), Jubilee Presbyterian Church, and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Los Angeles).

"I felt that there was a big need for leadership training for pastors," said Choi regarding how the idea first came about.

As pastors ministering in the Asian American church have continually been met with the spe-

cific challenges presented in that cultural context, Choi and the other church leaders felt the need to provide a space of encouragement and affirmation.

"There were, and still are, many who leave the ministry. We wanted to gather some key leaders and see what God would do," he said. "I think just getting together in fellowship and mutual learning has been an invaluable time for all who attended a Synergy Retreat."

The retreats take on a more casual format, focusing mostly on discussion. Pastors share experiences of what has – or has not – worked in their ministries.

This year, two pastors in particular were featured at the retreat: Larry Osborne, former senior pastor of North Coast Church, and Cory Ishida, the senior pastor of Evergreen Baptist Church of San Gabriel Valley. Pastors also had discussions following

the book *In the Name of Jesus* by Henri Nouwen.

Almost 20 churches were represented at the retreat, including the six that organize the event, as well as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South Bay Mission Church, Thanksgiving Church, Rooftop Church, and Chase Oaks Church from Texas, among others.

Many of the pastors are multiple-time returners to the retreat, and Choi explained that the relationships that are formed during the retreat are among the main reasons pastors enjoy the retreat most.

"The men who have been a part of this have become friends, partners, and some have collaborated in ministry and some have even started serving at the same church together," he said. "The friendship from this gathering has allowed for honest, humble, and caring discussions."

Garrett-Evangelical Announces 'Historic' Promotion of Asian American Female to Full Professor

The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located on the campus of Northwestern University,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that it will be promoting an Asian American female to full professor for the first time in its 162-year history.

The seminary's board of trustees voted unanimously to promote Dr. Wonhee Anne Joh, who had been serv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to now serve as a full-tim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ccording to the seminary, Joh's promotion makes her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an in the U.S. to serve as a full-tim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I'm deeply honored by this affirmation and look forward to shaping the future of theological education at Garrett," Joh said in a statement. "I am privileged to be part of this faculty and with colleagues I regard with high respect as teachers and scholars."

Joh has been a faculty member at Garrett since 2009, and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Asian/Asian American Ministries Center at the seminary.

Joh also authored and co-authored numerous books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 which she co-authored with Dr. Nami Kim, 'Critical Theology Against U.S. Militarism in Asia: Decolonization and Deimperialization.' In a statement, s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Christian witness during a time that she described as being violent.

"We live in a time with normalized and routinized forms of violence of one kind or another against lives already made precarious often through colonial legacies," said Joh. "We also live in a

time in which war has become perpetual. Christians must speak out against various forms of violence and become embodied believers of peace-making in this world."

Joh immigrated to the U.S. from South Korea at nine years old, and has since grown up in America and went on to receive her bachelor's degree in religious studies and English literature from North Central College; her M.Div.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her Ph.D. i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studies from Drew University.

"I had the opportunity not only to read Dr. Joh's work and converse with her about it, but also to experience first-hand the profound appreciation for her scholarship, her dedication, and her mentorship expressed by a wide range of colleagues, former and current students, and indeed many other people across the world," said Dr. Nancy Bedford, a Georgia Harkness professor of applied theology at Garrett, who also has served on Joh's promotion committee. "I feel blessed indeed to count her as a colleague and friend, and to benefit from her keen insight and presence."

The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today exists as a result of the merging of three institutions: the Garrett Biblical Institute, the Chicago Training School, and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The Garrett Biblical Institute was the first Methodist seminary to be established in the Midwest, and was founded in 1853. Today, the seminary still identifies itself as being "related"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boasts an "ecumenical and international reach."

Korean Americans Learn About Counseling,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Foster Care Services

For thos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o may have been wanting to learn more about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 regarding counseling,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foster care, one non-profit opened up its doors to present the services that they provide in those areas.

Some 100 attended the 'open house' event host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 state-licensed foster family agency and a non-profit which also provides counseling services and hosts seminars on topics such as relational issues within the family, mental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We're thankful that so many people who have been interested in the work of KFAM have attended," said KFAM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make ourselves easily accessible so that anyone would be able to come and receive help."

The open house event had separate corners for each type of service that KFAM provides, with different activities and presentations prepared.

Visitors of the counseling corner, for instance, were able to learn some ways that they could

evaluate their stress levels or current heart condition on iPads, and some were even able to receive direct counseling at the event.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orner featured a presentation on how a married or unmarried couple coul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 of their relationship.

A corner featuring KFAM's '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introduced the ways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could become foster families themselves, or contribute to KFAM's backpack drive and Christmas gift drive which is held for children in foster care each year.



KFAM staff and open house attendees take a look at the KFAM office space, located in Los Angeles. (Photo courtesy of KF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나름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m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m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Ten Encouragements for Those Discouraged by the Church

BY STEVE LEE

Churches are flawed. Every single church is broken in various ways and differing degrees. Yours. Mine. Yes, even the "better" ones. But you already knew that. You've probably seen your fair share of broken relationships, questionable leadership, church division, and maybe even a church split. I've seen my fair share as well, as have countless others. This is why church bashing is so vogue for some and a polarizing topic for others.

Yet even more polarizing can be the actual response to church brokenness itself. Some have chosen to turn a blind eye to real issues to keep church their "happy place," while others have chosen to be swallowed up under the tidal wave of bitterness and cynicism.

Surely God has more for His people and I believe He does. God isn't asking you and me to ignore the harsh and painful realities of imperfect churches. God welcomes candor with a spirit of genuine love and concern. But God doesn't intend that we despair in hopelessness either. Instead, I believe God may be asking us to wrestle through reality with deeper realities. To put it another way, He wants us to allow our worlds to collide with His Word so that we might view our churches through God-centered glasses, to see the church not only as we see it, but the way He sees it.

In this way, heavenly and earthly perspectives share in a waltz of pain and mourning, but also hope and love for His Church. Both realities are present, and one doesn't erase

the other. Instead, God's truths have a way of bending the way we see our fallen reality, as they bring a redemptive curve to our worldview, making earth not just livable, but beautiful.

The Apostle Paul dealt with this duality in a fascinating way in a letter he wrote to an ancient church. On the one hand, Paul deals with reality in addressing a relational conflict within church members (Phil 4:2). Yet a few verses later, he instructs the church to dwell on things that are "true, honorable, just, pure, lovely, commendable, excellent, and worthy of praise (4:8)".

He doesn't ask the church to deny the reality. He just asks the church to lean into greater realities.

Your personal wrestling with the church may be a long journey.

So here's a short list of 10 encouragements to lean on along the way:

1. Your church has drama and the Spirit-inspired New Testament writers knew this would happen. That's why they talk so much about unity! You may be surprised by drama, by they (and the Holy Spirit) were not.

2. God is not blind to your church issues. He's even more hauntingly aware than you are. (See: Rev 2-3)

3. A church that does not meet our expectation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but it may be the end of a poor expectation.

4. Your spiritual growth requires some church messiness. Messiness is a platform through which the gospel you claim to believe gets exercised. And if the gospel is lived out, your endurance and demonstrated grace through the messi-

ness becomes evidence of spiritual growth.

5. Church leaders are also wounded people who wound people. And many of them are aware and grieved by their actions.

6. Even the most broken church belongs to God as His prized possession. (See 1 & 2 Corinthians)

7. God is not asking you to be the savior of your hurting church. Jesus already died to save her. You're invited to pray and play your role as a member. The pressure is off; your participation is on.

8. Despite its many flaws, the church is still being used by God to display the beauty of Jesus and His gospel in countless unseen ways all over the world.

9. Your church presently has some godly and faithful men and women. Praise God for them! Thank them for their faithfulness!

10.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the Church. Jesus said He will build it and He has never broken a promise. (Matthew 16:18)

Pastor Steve Bang Lee is the College Pastor and Teaching Ministry Lea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in Brea, CA. He received his B.A. from Cal Poly Pomona and M.Div. from Talbot School of Theology. Steve also serves on the Board for CCM (Crossroads Campus Ministry).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Five Steps to Respond to A Hurtful and Hateful Email

BY THOM RAINER

"You have no business being the pastor of our church. All you are interested in is getting your own way and changing all the good things we have going. People are saying you should be fired. I agree with them."

Yes, it's a real email. Yes, it's from a church member to a pastor.

The Internet has certainly brought us incredible ways to do commerce, to get information, and to communicate.

But it has an ugly and evil side to it as well. It allows cowardly critics to hide behind a keyboard and cut people to the core through blogs, social media, and email.

So how do we respond when we get a hurtful email? The pastor who received that cruel, cowardly, and vitriolic email asked me that question. Here is how I responded:

1. Pray about it. Do not respond in a quick-tempered, fleshly anger. Give it to God. Let Him guide you. Pray for wisdom and pray for those

who attack you.

2. Wait. Some leaders work on the 24-hour rule. They will not respond to a hateful email immediately. Some wait longer. They are waiting on God. They are waiting to have a more tempered perspective. And they are waiting to get input from others.

3. Get godly counsel. I was recently accused of plagiarism in an email, a first for me. I was incensed. After a time of prayer, I knew a part of my anger was due to my own pride and ego. I pride myself on writing original content, so the accusation of copying someone else really irked me. But I sought the wisdom of others. I eventually responded strongly, but nothing like my original thoughts. The wisdom of others saved me from writing something I would have likely regretted for a long time.

4. Decide to respond or ignore. Not every email, tweet, blog post, or Facebook post is worthy of a response. Sometimes it's just best not to engage the critic. That can be tough, because we so much desire to defend ourselves. But if you do respond, I recommend this next step.

5. Call or meet with the critic if at all possible. I know it's not always possible to have a verbal conversation with someone. But meeting face-to-face is ideal, and talking by telephone is better than a written response. Many critics are taken aback when they see the willingness of the person they attacked willing and desirous to meet with them.

Leadership is tough, particularly in the church. You will get those "nastygrams" from time to time. Remember the wisdom of Proverbs: "A gentle answer turns away anger, but a harsh word stirs up wrath" (Proverbs 15:1).

It's not always the easiest path, but sometimes it's the best and most godly path.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May 24,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 Thom.S.Rainer.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 일시 : 6월 13일(화) 오전 10시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없음
-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Texas Legislature Approves Bill to Protect 'Religious Refusal' for Adoption Agencies

The Texas legislature has approved a bill that would allow religious adoption agencies to refuse to provide services to individuals based on their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The bill, called the "Freedom to Serve Children Act," passed in the House with a vote of 93 to 49 in early May, and in the Senate with a vote of 21 to 10 on May 21. It now awaits the signature of Texas Governor Greg Abbott.

Proponents of the bill said the measure is necessary to be able to maintain the religiously affiliated agencies in the state, which make up about 25 percent of the state's service providers. Religious agencies that provide such services in Texas as well as in other states have cut back in their involvement, and cited concerns that they may face lawsuits if they refuse to provide services to potential parents who are single, LGBT, or non-Christian, for instance.

"Faith-based child-placing agencies should not have to sacrifice their religious convictions when serving foste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hen it is in fact those very convictions that lead them to work with orphans and the vulnerable in the first place," Gus Reyes, the director of the Texas Baptist Christian Life Commission, was quoted as saying by Christianity Today.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The Texas State Capitol, pictured in 2012. (Photo: Britt Reints / Flickr / CC)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said he is "thankful" for the approval of the bill, and added, "My prayer is that this would continue to the federal level, so that families and communities can protect the vulnerable without surrendering conscience freedom."

Opponents argue that the measure is discriminatory and prioritizes the needs of the agencies rather than the needs of the child. Many religiously affiliated agencies also rece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which was another factor that opponents cited as a point of concern.

"Hundreds of faith leaders from Tex-

as and across the nation have warned that bills like this are about discrimination and hurting people, not protecting religious freedom," Kathy Miller, president of the Texas Freedom Network, was quoted as saying by Dallas News.

However, supporters rebut that by saying there are still other agencies without religious affiliations that provide the same services.

"This bill doesn't prohibit particular groups from adopting, it doesn't establish one faith over another," Senator Charles Perry, one of the sponsors of the bill, was quoted as saying by the Associated Press.

Gunmen Attack on Egypt's Coptic Christians Results in at Least 28 Deaths

At least 28 Coptic Christians and dozens more were injured when multiple gunmen attacked them on their way to a monastery on Friday.

According to reports, eight to 10 gunmen stopped the bus in which the Coptic Christians were traveling, and forced the passengers to recite the 'shahada,' a declaration of the Islamic faith. When they refused, the gunmen started shooting the passengers, taking the lives of at least 28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25 more.

Among the victims included children as well as U.S. citizens. The Health Ministry reported that two of the children were two years old.

The Islamic State later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hen they asked each person about it, everybody say no, they shot them in the head," Gerges Morkous, one of the passengers on the bus, told CBS News. "They have no mercy; they shot the mans, children, womans, everybody."

Morkous' nephew, Mohsen Morkous, was a U.S. citizen who was killed in the attack, CBS News reports.

The attack is yet another one out of a string of attacks on Egypt's Coptic Christians that the Islamic State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wo Coptic churches in Egypt were bombed on Palm Sunday, killing more than 44 people, and two more were bombed last Christmas, killing 24. Since December, more than 100 have been killed in the numerous attacks.



The north side of the Monastery of St. Samuel the Confessor in Egypt, where the Coptic Christians were headed before they were stopped by gunmen on May 26. (Photo: Roland Unger/ Wikimedia/ CC)

Thousands gathered at the funeral prayer service in Deir al-Jarnous near Minya, the location from which the bus had departed and where several victims of the attack were buried.

"God will avenge us. We will not do anything violent because we are Christians and love is in our hearts," a mourner at the service told Reuters.

The recent attack drew international condemnation, including from activists of human rights and persecution watchdog groups.

William Stark, the regional manager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called the attack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s "blatant and targeted acts of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Extremist groups, especially ISIS, have declared Christians to be their 'fa-

vorite prey' and seek to eliminate the Christian minority," said Stark. "The government must be more intentional about protecting vulnerable minorities and punishing the attackers. Continual support for displaced families is vital, whether it is food, housing, or medical care."

Egypt's President Abdel-Fattah el-Sisi declared a three-month-long state of emergency following the Palm Sunday attacks. The Associated Press reports that a security chief of the province at which the Friday attack took place was removed from his position and transferred to a new post.

Hours after the Friday attack, el-Sisi condemned the attack in a speech from his palace, and said that the attack "will not go unanswered."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ac.org



구문 분석을 통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Diagramming) 세미나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묵상을 하거나 개인 성경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보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모든 문장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 하여서 본문을 더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익히기만 하면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입니다.

-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기독교일보 컨퍼런스 룸
- 주 소 :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 비 용 : 무료
- 문 의 : (213)434-1170, (213)739-0403
- 주 최 : 기독교일보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강사 : 김병학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하시엔다 하이츠 소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와 미주장신대학교 강의(설교학)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 23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봉사,마음,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6월 17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Mیشن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염제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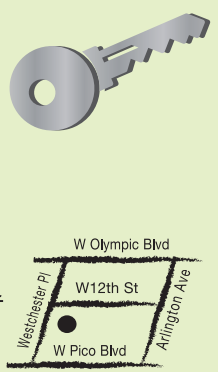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적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에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좋은 것을 반복하는 지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반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쁜 것을 선택해서 반복하면 나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나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반복하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좋은 것에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의 중요성을 거듭 깨달아야 합니다.

반복을 통해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것은 어떤 일에 통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분야에 10년 동안 집중해서 반복할 때, 그 분야에 통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복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복한다고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반복을 통해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적 반복이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중에 경험한 실수와 실패를 고쳐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반복을 통해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복하면 물입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입의 경지는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3:23).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깨달음은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을 거듭하게 되면 돌파력이 생깁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도 뚫게 됩니다. 반복하면 축적하게 됩니다. 축적하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많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임계점입니다. 물이 99도

에서 100도에 이르게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에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축적하게 되면 돌파하게 됩니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립니다. 물이 기다리는 중에 점점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장애물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복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몸을 반복해서 운동할 때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은 몸을 지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을 반복하면 생각의 근육이 생깁니다. 생각의 근육이 생기면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면 지속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작은 하지만 그 시작한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뒷심을 키우는 것이 반복입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반복해 보십시오. 짧은 말씀 한 절을 하루 종일 또는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좋은 책을 선택한 후에, 반복해서 읽어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말씀 묵상 속에 담아두신 반복의 지혜를 통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살람.

귀여울 수밖에 없는 강아지

어릴 때 개를 한 마리 이상 늘 집에서 키웠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개를 보면 너무나 좋다.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 주고 싶을 때가 많다. 먹을 것을 주며 함께 뒹굴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에 온 후로는 한번도 개를 집에서 키운 적이 없다. 어릴 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얼마 전 딸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 친구로부터 하루를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 나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나도 많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강아지다. 그 강아지는 3달 정도 된 갓 태어난 새끼였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를 보더니 마구 짖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가까이 오지를 않는다. 안아 주어도 금방 튀어 나가려고 꿈틀댄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대를 한 만남인데 그 강아지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얼마간을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몇 시간 후 그 강아지는 훈련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루 구석구석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꼼꼼히 용변을 보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루를 지나며 빨리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왜 그렇게 달랐을까? 그 이유는 그 강아지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내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강아지가 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부르면 오고 또한 갈 수도 있는 강아지였기 때문이고, 안고 있으면 포근함을 느끼며 잠을 자던 강아지였기 때문이었다.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할 때에 강아지가 주인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짖으며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품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기도 또한 가기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나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 나이다"(시편 123편 2절)라는 말씀으로 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자녀로 삼아 주셨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우는 그 무엇이 아니라,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입히고 인도하신다.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순종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종이 특별히 말로 하지 않아도 주인의 손을 보면 그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초의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테러와 모싯잎 송편

지난 23일,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영국 맨체스터의 한 축구장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6일에는 이집트 카이로 인근에서 버스에 1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뛰어들어 총기를 마구 난사하여 아이들을 포함 2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향해 가고 있던 크리스천들을 겨냥하여 일어난 테러였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작년 12월에 ISIS 소행의 자살폭탄이 일어나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후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2001년 911 테러가 신호탄인 것처럼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들은 이 지구촌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이 위협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대도시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 사건과 유럽공동체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 등은 세계가 온통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어난 난민 사태 역시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고통받는 적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는 한반도의 긴장은 지구촌의 위기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4대 강국의 묘한 정치적 힘겨루기는 정작 한반도의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한숨만 나는 이 시간에 갑자기 한국 방문 중에 모싯잎 송편을 처음으로 먹어보았던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순천까지 가 그 중 가장 맛있다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계산대 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막

가게에서 포장까지 되어 나오는 모시 송편을 그 자리에서 뜯어 주먹만한 떡 하나를 그냥 내 입에 밀어 넣습니다. 보통 식식은 맛보기로 조그맣게 잘라서 이쑤시개로 찍어 입에서 감질나게 먹는 것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포장되어 나가는 제품을 그냥 뜯어서 입에 통째로 넣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쫄깃쫄깃한 맛이 입에 착착 달라붙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마다 그 큰 떡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뜯은 송편은 벌써 없어지고 또 새로 포장되어 나온 떡을 뜯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봐도 아까울 정도로 퍼주는 인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두세 상자씩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 나온 보리떡 포장까지 뜯어가면서 시식을 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택배가 된다는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각박한 지구촌의 소식으로 한숨만 나오는 이 시간에 모싯잎 송편 집 아줌마가 그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역자의 몫

누가복음 15:20-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간은 나면서부터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타인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미끼, 울무에 걸려 이용당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인간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신앙인격을 변화 받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역자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 얻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옛 습관은 벗어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두 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여유있고 풍족한 생활에 세상 분별없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아버지의 법 아래서 벗어나 독립하여 자기 인생을 즐기곤 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선뜻 재산을 나눠 내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간청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주고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20절 말씀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날마다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생각처럼 재물을 얻어 아버지로부터 해방된 마음으로 화려하게만 보이는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그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전날 함께 허랑방탕했던 자들도 그를 외면했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는 더욱 궁핍하게 되고 결국 돼지 치는 일을 얻게 되지만 그 일 또한 쉽지 않았습니 다. 먹을 것도 부족하여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주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

고 후회를 했지만 그는 돌아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여기서 굶어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눅15:18-19)”고 작정하고 오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살고 싶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하여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죽음에 직면해서 몸부림치는 탕자인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그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전 날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우는 것이 되며,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버지의 조건에 함께 동참하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예전의 조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은 작은 아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발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종에게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고 답합니다. 이 대답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던 작은 아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들어오라 권하니 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

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15:29-30)” 하며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법을 따라,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는 그 아들이 곧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동역자의 몫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육신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은 입술로만 믿음을 지키 살아가고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동역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기대 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동역자로서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억지로 얻어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없앴습니다. 그는 아버지 중심으로 사용할 줄 몰랐고, 자기중심적으로 허비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있어 재물은 있어서는 안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범죄하고 허황

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뿌리치고 하늘 뜻대로 살되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지혜롭고 헌신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몫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속아 살지 마십시오.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뜻을 좇아 살았을 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도 누가복음 15:29에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은 아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섬기자는 태도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불들어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는 말씀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의 입장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는 길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 회개함으로 의로워겠다는 인정을 받고, 성령의 보증인 자녀 된 신분을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의 조건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재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학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아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방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대방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사막의 등산교회 \$140
 Standard 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통, 발통,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제1회 미용선교사 양성을 위한 헤어컷 아카데미 **10주 코스**

10주만에 미용사(헤어드레서)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의 장에서, 봉사의 장에서, Job(잡)으로

당신도 10주만에 Hair Cu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아시아 대회 우승자 김인태 집사가 직접 남·여 헤어컷을 집중적으로 개인지도 합니다.

과목 : 단발, 이사도라, 스파니엘, 중간 레이어 컷, 롱레이어 컷, 숏트 컷, 남성 컷, 샹기 컷, 상고 컷, 스포츠형 컷, 유행 컷 등...

회비 : \$500(\$200불 상당 미용키트 포함) 가위 2개, 크리퍼, 레저컷 용, 마네킹, 꽃이, 빗, 스프레이 등

디플로마 증정 *간단한 다과, 음료, 파킹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7:00 ~ 9: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213)739-0403
선착순 모집 : 10명
주최 : 기독교일보

강사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전 국가대표(86년) 아시아 대회 우승자
 현 세미나 강사
 팔레스티나 미용대학 초청강사
 Queenstone Colleague 강사

신간 도서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최영기 | 두란노 | 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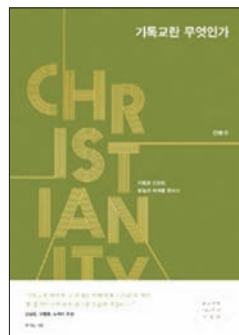
'신약적 가정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휴스턴서교회...



추천 도서

교회에 대한 세상적 질문과 요구를 경계하라

신학의 기원과 본질과 특징을 볼 때 참된 신학이 있고 거짓 신학이 존재한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병수 | 북있는사람 488쪽

셋째, 저자는 예전에 있어 균형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고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주제들은 인간이 포기하거나 인간의 생각이 존중되는 방향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저자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으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교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교회에 대해 풍성하게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교회에 대해 서술하는 저자의 글을 보며 많은 감동이 되었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가 현대화란 이름으로 세상과 똑같아지고 시류에 편승하며 변질되고 있다...

결론으로 신학이 약해지고 무분별해 보이는 시대에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와 개혁교...

방영민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

존 번연 | 이헤림 역 | 생명의말씀사 | 416쪽

구원에 관한 역사적 서술과 구원의 체형 속에서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실제적 체험을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실제하시니 그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며...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고등종교처럼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수준에서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도의 기독교는 아닌가?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고등종교처럼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수준에서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도의 기독교는 아닌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무엇을 개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현재 기독교가 벼랑 끝에서 있다고 진단하고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 온 역사적 개혁주의에 신앙에 입각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다.

머레이의 영적 능력

앤드류 머레이 | 유재덕 역 | 브니엘 | 240쪽

기독교 영성 분야의 거장 앤드류 머레이의 책이다. 영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움직이시고, 세상의 권세들이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주권자이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했: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로텍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평화통일 선교회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통일학 개론 강의(매주 OPEN)
강사 : 남석훈 피아니스트 선교사
사역 : 상담학 박사 에스더 남 선교사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W Olympic Blvd, W12th St, Westchester Pl, W Pico Blvd, Arrington Ave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승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